

吳濁流 短篇小說 小考*

俞載星**·李鎔泰***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吳濁流 생애와 작품
3. 작품 분석
 - 1) 작품장작의 시대적 배경
 - 2) 인문 형상 분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쭈어려우(吳濁流)의 작품은 대만의 식민생활과 2차 세계대전 하의 공포, 그리고 광복 후의 사회동란 및 경제공황 등등을 반영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경찰제도·保甲制度·황민화정책·경제약탈·사회생활 및 식민지 국민의 비굴한 삶 등의 모습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吳濁流는 “내가 쓰는 소설은 역사성의 성격을 띠고 있어 창작한 개개의 작품은 사회의 한 단면이다. 지금 19편을 골라 출판하는데, 이것들을 연결지어서 분석하면, 일제 강점기 및 광복 후의 사회상황의 투영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왜곡된 사회현상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사회의 내막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¹⁾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의 가치는 대만의 주체의식과 대만인의

*본 논문은 2017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瑞逸大學校 비즈니스中國語科 助教授

*** 白石文化大學校 글로벌語學部 教授

1) 我寫的小說帶有歷史性的性格, 所寫的各篇都是社會真相的一斷面, 現在選出十九篇付梓, 若

보편적 좌절과 고민을 성실히 기술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吳濁流는 “문학은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상으로는 정치상으로도 혹은 그 밖의 것이든 모두 안 된다. 만약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학 자체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학의 생명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예술과 분리될 수 없다.”²⁾라고 하였다. 또 “문학은 문학일 따름이다. 절대적인 자유 상태에서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아첨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며, 구호를 외치는 것 또한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예술일 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것을 상업적 도구로 사용하려다 실패했고, 전쟁 전에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다 안 되었던 것은 그러한 예이다.”³⁾라고 했다. 필자는 吳濁流의 문학관에 동의하며, 정치적 수단이 아닌 문학작품 자체로서의 吳濁流 소설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吳濁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장편소설 『亞細亞의孤兒』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필자는 吳濁流 단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대만의 일제 강점기 및 광복 후 대만인들의 사회상 및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亞細亞의孤兒』와 견줄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吳濁流의 단편소설로는 「水月」·「泥沼中的金鯉魚」·「歸兮自然」·「功狗」·「先生媽」·「糖仔仔」·「陳大人」·「波茨坦科長」·「泥濘」·「友愛」·「狡猿」·「銅臭」·「閒愁」·「三八淚」·「老薑更辣」·「幕後的支配者」·「很多矛盾」·「牛都流淚了」·「路迢迢」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⁴⁾에 대한 성실한 검토를 바

將此十九篇連串起來，日據時代及光復後的社會情形之投影，以及政治的影響不消說，同時，社會的歪風畸形怪相也加以窺見的，所以亦可作為本省社會之內幕來看吧。(吳濁流，「吳濁流選集自序」，『吳濁流選集』，臺北：遠行出版社，1977，17쪽)

2) 文學不能來做工具，無論是商業上，抑是政治上，或其他都不行，如果拿來做工具的話，一定影響到文學本身的生命。原來文學的生命是藝術，所以文學不能遊離藝術。(吳濁流，「文學就是文學，不是工具」，『臺灣文藝』11期，1966，30쪽)

3) 文學就是文學，要有絕對自由意識才能產生好作品，拍馬屁的，喊口號的治不是文學，文學是藝術不能拿來做工具，象日本當作商具也無成就，戰前拿去做政具也不行。(吳濁流，「對文學的一二管見」，『臺灣文藝』46期，1975，75쪽)

4) 村上知行，「先生媽的吳讀後」，『潛廬集 上』，臺北：集文，1963. 葉石濤，「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臺灣文藝』第9期，臺北：臺灣文藝，1966. 瀧川勉，「殖民地統治下吳的臺灣民衆群

탕으로 작자의 사상 및 작품의 예술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吳濁流의 생애와 작품

吳濁流의 본명은 吳建田, 號는 饒町, 字는 濁流이고, 客家 사람이다. 그는 시인·소설가로 활동하였으며, 『臺灣文藝』 및 吳濁流文學獎基金會의 창시자요 문학운동가이며, 대만 광복 전후 시기의 사실주의 작가이다. 1900년에 대만 新竹의 新埔에서 태어나서 77세인 1976년에 질병으로 타계하였다. 그는 경제적·문화적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살았으며, 할아버지인 吳芳信의 영향을 많이 받아⁵⁾ 반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증용적 처세를 보였다.⁶⁾

吳濁流는 11세인 1910년에 新埔公學校에 입학하여 16세 때 졸업하였고, 1916년 17세 때 대만 총독부 臺北師範學校에 입학하였다. 21세 때인 1920년

像], 『臺灣文藝』第42期, 臺北: 臺灣文藝, 1974. 張良澤, 「吳濁流的社會意識」, 『中外文學』3卷9期, 1975. 葉石濤, 「一年來的省籍作家及其小說」, 『臺灣鄉土作家論集』, 臺北: 遠行, 1981. 葉芸芸, 「試論前後初期的臺灣知識份子及其文學活動」, 『先人之血 土地之花』, 臺北: 臺灣文學研究會, 1989. 彭瑞金, 「揮舞筆劍的文俠」, 『吳濁流集』, 臺北: 前衛, 1991. 葉石濤, 「吳濁流論」, 『吳濁流集』, 臺北: 前衛, 1991. 李喬, 「臺灣文學造型」, 『客家臺灣文學論』, 高雄: 派色文化, 1992. 彭瑞金, 「臺灣客家文學的可能性及以女性爲主導的特質」, 『客家臺灣文學論』, 臺北: 客家文史工作室, 1993. 許俊雅,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臺北: 文史哲, 1995. 范振乾, 「論吳濁流作品中的臺灣人意識」, 『吳濁流百年誕辰紀念專刊』, 新竹縣文化局, 2000. 施正鋒, 「前後吳濁流的認同觀-情境條件下的臺灣人認同」, 『吳濁流百年誕辰紀念專刊』, 新竹縣文化局, 2000. 歐宗智, 「走出歷史的悲情-臺灣小說評論集」, 『走出歷史的悲情-臺灣小說評論集』, 臺北: 政府文化局, 2002. 葉石濤, 「客屬作家」, 『臺灣客家文學論』, 臺北: 客家臺灣文史工作室, 2003. 鍾肇政, 「時代脈動裡的臺灣客籍作家」, 『客家文學論』, 臺北: 客家臺灣文史工作室, 2003. 錢鴻鈞, 「從大河小說濁流三部曲吳看臺灣文學經典亞細亞的孤兒」, 『亞細亞的孤兒』, 新竹縣文化局, 2005. 등이 있다.

5) “母親爲了家中的事, 園裏的事, 三餐的飯食, 飼豚、鷄之外, 又要照顧弟妹, 已忙不過來。因此把我完全交給了祖父。所以, 自我有意識起, 就只愛祖父一個人的愛, 被疼濁愛到放到眼裏也不痛的程度。因此, 和母親生活的事雖忘記了, 和祖父一同生活的事是不能忘懷的。”(吳濁流, 『臺灣連翹』, 臺北: 前衛出版社, 1991, 24쪽)

6) 吳濁流, 『無花果』, 臺北: 前衛出版社, 1988, 56쪽.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吳濁流는 신포공학교 照門 분교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1921년 22세 때 新竹州 교육과에서 교육논문을 공모하자, ‘자유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관리를 비판하는 「學校和自治」란 논문을 투고하였다. 23세 때는 『臺灣青年』, 『改造』 등의 잡지를 구독하고 교장과 경찰에 불경하였다는 이유로 苗栗縣의 四湖公學校로 전근 조치되었다. 1924년에는 五湖 분교로 전근조치를 받았고, 林先妹와 결혼하였다. 1926년에는 교장의 요청으로 대만인 교사들 간의 불협화음 중재를 위해 사호공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1927년엔 苗栗詩社(약칭 栗社)에 가입하고 고전시를 창작하면서, 사회참여적 지향이 뚜렷한 舊讀書인들의 문학 모임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苗栗詩社를 통해 애국 詩詞를 배움으로써, 일본 통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작품에 표출하였으며, 이 시기에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하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吳濁流는 폐결핵 환자임이 의심되어 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호공학교 분교 재직 시절 소테카와(袖川)라는 일본인 여성 교원과의 만남은 그의 소설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吳濁流는 회고했다.⁷⁾ 그녀의 격려 하에 1934년에 일본어로 소설 창작을 시작하였고, 일제 강점시기에 중국인이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그 주된 내용으로 묘사하였다. 이 시기에 「水月」·「泥沼中的金鯉魚」·「歸兮自然」·「功狗」·「五百錢之蕃薯」·「間中之忙」등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편소설은 吳濁流 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사회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7) “我向來不會與日本籍的女教員來往，而和她的交往雖然只有一年，但可以說她是最了解我的女性。因為每天晚一到我家來，往往會談起喜歡的文學，所以我就受到她的影響而終於踏上了文學之路。在她的激勵之下，有一年的文學，我熱中於寫作，一九三六完成「水月」、「泥沼中的金鯉魚」、「歸兮自然」；一九三七年完成「功狗」、「五百錢之蕃薯」、「間中之忙」皆發表於『臺灣新文學』雜誌。然而不知爲什麼，在她調識使我的文學熱夢清醒過來了。那麼，她的調識使我的文學熱夢清醒的原因，就是由於我的文學熱，是她鼓勵才燃燒起來的，自己本身並沒有志於文學創作的關係。換句話說，在她勸誘之下執筆寫作。當作品「泥沼中的金鯉魚」入選『臺灣新文學』雜誌小說徵文首獎時，我已經是三十七歲了。”(吳濁流, 『臺灣連翹』, 臺北: 前衛出版社, 1991, 87쪽)

1940년에 교원에 대한督學과 능욕에 대해 항의를 하고 21년간 봉직했던 교단을 사직 하였다. 1941년에는 南京에 가서 『南京新報』 기자 생활을 하였고, 1942년에는 대만으로 돌아와 米穀出入協會 苗栗出張所 주임이 되었다. 이 때 『臺灣藝術』에 연속 10개월 동안 「南京雜感」을 발표하였다. 대만에 징병제가 실시된 1943년에는 장편소설 『胡志明』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1944년에는 『臺灣日日新報』와 『大陸新報』 기사를 하면서 「陳大人」·「先生媽」를 집필하였다. 1945년 장편소설 『胡志明』을 탈고하였고, 『臺灣新生報』(일제 강점기의 『臺灣新報』) 기자 및 편집을 하면서 『無花果』·『臺灣連翹』을 창작하여 상처입은 대만인들의 영혼을 탐색하였다. 1946년에는 『民報』 기사를 하면서 『亞細亞的孤兒』의 최초 판본인 『胡志明』(원명은 胡太明)을 일본어로 출판하였고, 「陳大人」을 『新新雜誌』에, 「先生媽」를 『民生報』에 각각 발표하였다. 1947년 수필 『黎明け前の臺灣』을 출판했고, 1948년에는 『波茨坦科長』을 출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臺灣文學の現況」을 일본의 『雄鷄通信』에 발표했으며, 大同工職 訓導 주임을 역임 하였다.

1949년에 『藍園集』을 출판했고, 일본어로 「書呆的夢」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며, 臺灣機器工業同業公會 전문원이 되었다. 1950년에는 일본어로 『友愛』를 집필하기 시작하였고, 『泥濘』을 탈고하였다. 1952년에는 『十圓札の一生』의 창작을 시작하였으며, 1955년에는 『狻猊』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アツアの孤兒』(『胡志明』)을 일본에서 출판하였고, 『狻猊』을 탈고하였다. 1957년에는 『アツアの孤兒』(『胡志明』)을 『歪められた島』로 개명하여 출판하였다. 1958년에는 한시집인 『風雨窓前』을 출판하였고, 소설 『銅臭』·『閒愁』를 창작하였으며, 『友愛』·『功狗』를 번역하였다. 1959년에는 「書呆的夢」을 번역하였고, 『亞細亞的孤兒』는 중국어 번역본 『孤帆』로 高雄黃河出版社에서 발행되었다.

1960년에는 소설 『三八淚』와 산문 「迎看春天」을 집필하였고, 소설 『道はひと筋』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有關文化的雜感一二」를 창작하였다. 1962년에는 1946년 일본어 판본인 『胡志明』을 『亞細亞的孤兒』로 개

명하여 출판했고, 『芳草夢』 122首를 작성하였다. 1963년에는 단편소설·수필·논문 등을 수록한 『瘡疤集』 2권을 출판하였다. “瘡疤”는 일본에 대한 대만인의 아첨 행위 및 일본에 부역하는 대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동족을 압박하는 참혹한 현실을 의미하며, 이 책은 당시 작가 스스로 느낀 좌절과 분노와 일제 강점기 사회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풍자와 비판을 통해 표현했다. 수록된 단편소설로는 「糖仔仔」·「波茨坦科長」·「功狗」·「泥沼中的金鯉魚」·「狡猿」·「三八淚」·「銅臭」·「老薑更辣」·「書呆的夢」·「閒愁」·「歸兮自然」 등 19편이 있다.

1964년에는 대만문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사비를 들여 『臺灣文學』을 창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만 본토문예를 추진함으로써 대만현대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65년에는 순수 민간주관의 “臺灣文學獎”을 제정하여 문예신인의 창작을 독려했고, 또한 「幕後的支配者詩的管見」·「要經得起歷史的批判及對漫得起子子孫孫」·「我最景仰的偉人」등을 창작하였다. 1966년 吳濁流가 “臺灣文學獎”을 창립하자, 林瑞明은 대만문학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매년 걸출한 대만문학가를 배출하여 1969년 7월에는 “吳濁流文學獎基金會”가 되어 대만 정신의 문학진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⁸⁾ 또 이 해에 『吳濁流選集』 3권을 출간하였고, 이전에 출판된 것 이외에 「幕後的支配者」·「很多矛盾」·「牛都流淚了」 등 3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었는데, 대만인과外省人 간 충돌·기독교 전파·정부 주도로 형성된 농민의 손실 등등의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부패현상을 폭로함으로써 이전의 풍격을 계승하였다. 1968년에는 82일에 걸쳐 20개 국가 40여개 지역의 세계여행을 하면서 『臺灣文學』 22기에 「談西說東」의 기행문을 발표하였다.

1971년에 「泥濘」·「路迢迢」의 중편소설이 수록된 『泥濘』을 발표하고 『臺灣連翹』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臺灣文藝』 第34기에 「別人無份的世界猶之乎熄山」을, 『臺灣文藝』 第35기에는 동남아 유람기인 「東南亞漫遊記」를 기고하였다. 이외에도 漢詩 2,400首를 모은 『濁流詩草』를 출판하였으

8) 林瑞明, 『臺灣文學的吳歷史考察』, 臺北: 允晨文化, 1996, 42-43쪽.

며, 일본 社會思想社에서 『黎明け前の臺灣』·『泥濘生きる』를 출판하였다. 1973년에는 수필형식으로 대만과 외국의 정치 사회제도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대만문예출판사에서 『東南亞漫遊記』를 출판하였고, 『臺灣連翹』를 번역하여 『臺灣文藝』 第39期~第45期에 연재하였으며, 일본의 新人物往來社에서 『アツアの孤兒-日本通治下の臺灣』을 출판하였다. 1974년에는 북남미를 여행하고 「對文學的一二管見」을 집필하였다. 1975년에는 「睽違三年, 重遊日本」·「重訪四湖」·「回顧日据時代の文學」등을 저술하였다. 1976년에는 「新年感想-大地回春」·「印紐澳遊記」·「非印遊記」·「北埔事件抗日烈士蔡清林」을 썼고, 臺灣文藝資料館을 개설하였다.

3. 작품 분석

1) 작품 창작의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1895~1945년)에 대만의 지식인들은 일본어 구사능력에 따라 차별적 계층화를 당했다.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 일본어는 문명어로 여겨졌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지식인 계층에서는 훨씬 더 강조되었는데, 이는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인 사이에 끼어 문화적·종족적 차별의 상황에서 방황하며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처지라 할 수 있었다. 葉石濤는 이러한 대만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마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 같았다. 학교나 사회의 공개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본어로 이야기해야 했으며 일거수일투족 모두 일본 사람과 같아야만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일본인의 모든 것은 대문 밖에 내버려두고, 대만 말로 이야기하고, 馬祖廟와 각종 묘를 다니며 참배하고, 이따금 어른들로부터 중국 대륙의 전승과 고사를 듣는 전통적 생활방식을 따랐다.”⁹⁾고 하였다.

대만인들은 일본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던 피식민인으로서 반드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강요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본인 되기”를 차단당하는 이중 억압의 기제를 통해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의 차이를 강요당했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는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간의 차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사시에 천황의 방패가 되어 천황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목숨을 바치는 ‘尊王攘夷’의 정신을 고취시켜, 일본인=국민=사람으로 호명될 수 있는 동화·황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945년에 대만은 일본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 국민당 정부에 귀속되었고, 8월27일 陳儀가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어 대만 통치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가토 후미요시는 『대일본제국붕괴』에서 당시 대만의 분위기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1945년 8월15일 12시, 대만에서도 일본천황의 육성방송이 라디오로 흘러나왔지만, 臺北의 거리는 식민지 해방과 조국 복귀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일변하지 않고 패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9월2일 항복문서 조인식 이후 대만은 중국의 전쟁지역으로 취급되었다. 9월9일 남경에서 중국 전쟁지역 항복식이 실시되어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과 시정권의 이양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국민정부에 의한 대만의 인수가 시작되었지만, 중국 측의 행동은 신속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당시의 대만 주민들이 제일 먼저 부족했던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였다. 이는 조선에서 정치적 흥분이 고조된 결과 정치단체들이 난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다.”¹⁰⁾

국민당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것인데, 당시의 상황에 대한 賴澤涵 등의 연구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46년 말 陳儀 정부의 대만 경제활동에 대한 제어는 일본인을 초월하였다. 대만 민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은 인력과 적은 경비를 가진 중국 관료는 이렇

9) 葉石濤, 『一個臺灣老作家的50年代』, 臺北: 前衛出版社, 1991, 7쪽.

10) 가토 후미요시, 안소영 역, 『대일본제국붕괴』, 바오출판사, 2010, 127-139쪽.

게 큰 경제왕국의 관리를 일본인 관료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적 통제는 보편적 탐욕현상을 조성했고, 거의 모든 상업적 교역에 관료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 관료들은 정식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을 생각했다. 어떤 관료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들의 특별한 고객이 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¹¹⁾

광복 초기 대만인들은 사회 불안정, 물가과동, 통화팽창, 풍기문란 등을 겪게 되었고, 조국의 품에 안겼다는 기쁨이 점차 절망으로 변했으며, 그러한 현상이 악화된 결과 “2·28”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중화정통주의를 완고히 고수함으로써 대만인의 기용을 철저히 배제한 국민당 정부의 정책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결국 外省人과 本省人간 갈등의 씨앗이 되어 대만사회의 고질적이면서도 민감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吳濁流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대만에서는 外省人으로 배척당하고, 중국에서는 대만인으로 배척당하는 모순 속에서 중국과 대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체성의 부재를 표현하였다.

본 절에서는 1936년의 「水月」·「泥沼中的金鯉魚」, 1937년의 「歸兮自然」·「功狗」, 1944년의 「先生媽」, 1945년의 「糖仔仔」·「陳大人」, 1948년의 「波茨坦科長」, 1950년의 「泥濘」·「友愛」, 1956년의 「狡猿」, 1958년의 「銅臭」·「閒愁」, 1960년의 「三八淚」, 1963년의 「老薑更辣」, 1965년의 「幕後的支配者」·「很多矛盾」·「牛都流淚了」, 1967년의 「路迢迢」 등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을 지식인 형상·어용인사 형상·여성운동 형상·하층계층 형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吳濁流 단편소설의 가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1) 一九四六年底，陳儀政府對臺灣經濟活動的控制甚至超過日本人，然而中國官員又無法像日本人一樣，把這個龐大的經濟王國管理得公正而有效率，因為他們既少人手，又少經費，對本地的民情又不了解。由於這些原因，新的經濟控制釀成了普遍的貪污現象，差不多所有商業性的交易都需要某類的官員到場監督，那些官員忍不住就想再正規收費外再超收一點，另一些官員會施點小惠給那些送他們禮物或他們有什麼特權的顧客。(賴澤涵，馬若孟，魏萼，『悲劇性的開端——臺灣二二八事變』，臺北：時報文化，1993，147쪽)

2) 인물형상 분석

(1) 지식인 형상

吳濁流 단편소설 속에서 성공적으로 묘사된 지식인 형상으로는 「水月」의 仁吉 · 「歸兮自然」의 丁先生 · 「功狗」의 洪宏東 · 「老薑更辣」의 洪宏東 · 「幕後的支配者」의 阿九哥가 있다. 1936년 발표한 「水月」은 吳濁流의 처녀작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면서 교육계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좌천을 포함한 불공평과 차별적 대우를 받은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水月」의 주인공 仁吉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만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들의 빈곤이 일본 사람과 대만 사람간의 불공평 대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대만인들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하지 않은 처우(同工不同酬)”의 차별을 받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 식민통치자로서의 일본인이 주장한 “一視同仁” · “日臺一家”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었다. 작품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仁吉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바쁜 농사일이 끝나자 그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많은 생각 끝에 다섯 아이의 아버지임을 지각하였다. 지금은 농장에서의 임금과 부인의 임금으로 살아가나,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사실 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어 한 지가 이미 15년이 흘렀다. 이 15년간 그는 “회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질 않았다, 그의 희망은 높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지금 현실의 무상함을 본다. 같이 일하는 일본인과 비교하면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의 재직기간도 그만 못하나 과장 혹은 주임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40세의 나만 고용원이다. 일본인의 임금은 대만인보다 높을 뿐더러 60%의 수당과 숙사제공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어서 저축까지 한다. 지금 설탕회사는 매년 흑자이나 대만인에게는 이렇게 박하니,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온다. 이런 환경을 누가 참아낼 수 있을까?¹²⁾

仁吉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그의 아내 蘭英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다.

여보, 결혼 이후 지금까지 몽상을 지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질 않았구요? 생각해 봐요. 현재 큰 애 阿堅은 6학년이예요. 곧 중학에 가야해요. 당신이 동경으로 유학을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의 학비는 어떻게 해요?¹²⁾

작품은 주인공 仁吉의 꿈과 희망이 물에 비친 달처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조명하였다. 吳濁流는 일제 강점기 대만지식인의 전형적 인물인 仁吉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겪는 실망과 학문탐구의 꿈을 사실적 수법으로 그려냈으며, 일본 식민통치자의 추악함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대만인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차등정책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였다.

「歸兮自然」의 丁先生은 인자한 마음이 없어 잔혹한 수단으로 고양이를 학대한다. 吳濁流는 저항할 수 없는 고양이의 신세를 대만인에 빗대고, 고양이를 학대한 丁 선생님의 행위를 일본 식민통치자들의 잔혹한 형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당시 대만인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功狗」의 주인공 洪宏東은 公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리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부모라는 명예를 우선시한다. 그는 농업교육과 사회교육, 야학 교육 등 성실한 생활로 여러 차례 수상했지만, 오히려 승진하는 사람은 모두

12) 農忙時期一過, 他又死灰復燃, 禁不住心潮起伏, 最後想到他已是五個小孩的爸爸, 現在僅依靠農場的薪水和太太的工資來餬口, 除此之外并無其他收入. 事實上他又不能離開這份差是, 所以不知不覺他已幹了十五年了. 這十五年間他雖然對“會社”有過多少貢獻, 但“會社”對他卻從來也沒有改善過他的待遇, 可是由於他夢想很高, 根本不顧現實, 因此也不感到其中有何矛盾. 現在一旦看到現實的無情, 再和那自己共事的日本人來比較, 同是中學畢業, 在“會社”的年資又不如自己, 卻沒有一個不是已升為課長感主任的, 僅剩他一個人到了不惑之年, 仍然是個雇員. 日本人的薪水不但比臺灣人高, 而且又加上六成的津貼, 他們又有宿舍, 所以生活安定, 都有餘錢可供貯蓄. 現在的製糖會社雖然每年賺錢, 只是對臺灣人這樣刻薄, 想到這裏, 禁不住怒火沖天, 這樣的環境, 豈是大丈夫可以忍受的呢? (吳濁流, 『吳濁流集』, 「水月」, 臺北: 前衛出版社, 1991, 175쪽)

13) 我的先生, 你結婚以來抱著的美夢還沒有醒嗎? 你想, 現在大兒子阿堅今年唸六年級, 不久就要上中學, 你還在夢想去東京留學, 你想, 你的孩子, 你自己的學費.... (吳濁流, 위의 책, 7쪽)

일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결과 폐병을 얻어 3개월간 병가를 내자 퇴직금도 없이 퇴직처리를 당했다. 작품은 洪宏東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겨울이 가고 茶의 새잎이 돋을 무렵의 어느 날 洪宏東은 면직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연속으로 3개월간 휴가를 청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퇴직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명령서를 받자 한마디도 못한 채 씩씩하게 웃으며 내가 만일 訓導였다면 수령할 퇴직금이라도 있을 텐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대리교사인 그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반평생 동안 다른 교원보다 몇 배 노력을 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맞았다. 그는 쌀가게나 잡화점에 외상을 많이 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결국 그는 부득이 인정으로 이 외상값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¹⁴⁾

실직으로 인한 기아로 허덕이던 어느 날, 딸과의 대화를 통하여 洪宏東은 그가 명예롭게 생각한 표창장과 사탕을 살 수 있는 돈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아, 이걸 뭐죠? 그건 사직 명령서야. 이렇게 예쁜 게 마치 큰 돈 같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사탕을 살 수 있나요? 안 된단다. 이것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겠니? 오, 모두 쓸모없는 물건들이네요. 근데 예뻐요. 아빠 이것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이걸 퇴직통보서라 걸 수 없단다. 그럼, 저 벽에 걸려있는 것도 모두 같은 것인가요? 아니, 다른 것이야. 저것들은 상장이야. 모두 귀중한 것들이지. 그래요, 그럼 저 상장들을 가지고 가면 사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바보야, 저것도 종이란다. 오, 쓸모없는 것들이네요. 이상하네요, 저것은 걸어야 하고 이것은 걸을 수 없다고요? 명덕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빠 돈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¹⁵⁾

14) 輕寒過去, 茶葉又茁出新芽, 有一日洪宏東突然接到免職的命令, 因爲他連續請假了三個月, 依照規定就要退職了. 他拿到命令, 一句話都不說, 只苦笑著, 心裏想, 若是訓導就有退職金可領, 可是當代用教員的他卻無此恩典, 半生比其他的教員努力數倍, 也只落得這樣的結果. 他想到米店、雜貨店賒欠得很多了, 如何把這嚴重的問題解決是好, 末了他不得已才想用人情來安排這債務. (吳濁流, 「功狗」, 『吳濁流集』臺北: 前衛出版社, 1991, 42卒)

15) 阿, 這是什麼東西? 那是辭職的命令. 這樣美麗, 很像大鈔票, 這可以拿去買糖果? 不行, 這不

명예롭게 받은 표창장이 사실은 퇴직을 통보하는 종이에 불과했고, 洪宏東은 그것으로는 기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과 대만인 간의 불평등 구조에 맞서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릴 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은 없다. 吳濁流는 이 작품을 통해 일제 강점기 중국 전통지식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일방적인 전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老薑更辣」속의 金岩伯과 「很多矛盾」의 阿審伯에서는 그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吳濁流의 할아버지 吳芳信은 일본 식민정부의 고압정치로 인해 明哲保身하는 생존법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대만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吳芳信의 생각과 관념은 吳濁流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의 대목을 통해 그러한 면을 볼 수 있다.

대만은 하나의 섬으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새장 속의 새와 같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너는 자라서 ‘明哲保身’을 제일로 삼아라. 절대 일시적인 분노로 충동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든지 자중해야만 한다. 일시적인 분노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영원한 자중은 대장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시적 혈기로 일을 처리하면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연루된다.¹⁶⁾

吳濁流는 일본인이 동포에게 자행하는 불공정과 차별대우에 대하여 마음속

是鈔票。怎可以賣東書呢？噢，都是沒用處的東西，可是很美麗，爸爸這也做一個相框來掛在壁上，給人家看好囉。這是退辭令，是不能掛的。可是，那壁上掛的統統都是一樣的嗎？不，不一樣，那些獎狀，統統都是很寶貴的東書。好，那麼那個獎狀可以拿去換糖果嗎？三八，那個也是紙的。噢，都是毫無用處的東西，奇怪，那個要掛起來，這個不可以掛？明德不可思議地想了，以後，“爸爸給我一分錢。”（吳濁流，위의 책，100쪽）

- 16) 臺灣是一個孤島，周圍都被海包圍着，想逃也逃不出去。我們完全和籠中的鳥一樣，並不知什麼時候會被殺，這是我們可悲的命運。你長大了一定要以“明哲保身”為第一，絕不能因一時的憤怒而衝動起來。無論如何都得隱忍自重。一時的憤怒或慷慨是任何人都會的，永遠的堅忍自重就非大丈夫做不到。處世上，對這一點非好好了解不可。乘一時的血氣行事，不僅會招來自滅，也會連累族人。（吳濁流，『臺灣連翹』，臺北：前衛出版社，1991，24쪽）

으로는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줄곧 인내하며 침묵으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老薑更辣」의 주인공은 金岩伯이다. 그의 셋째 손자가 유학을 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하였다. 작품은 연회의 앞좌석에 위치한 劉前省長이 손자의 유학을 반대하는 金岩伯을 설득하는 대회를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마음속에 서양을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金岩伯, 축하합니다. 손자들이 모두 총명하여 해외유학을 가게 되니 장차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쟁취할 것입니다. 해외유학을 가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식인의 최고 목표인데, 아직 모르시나요? 이런 좋은 일은 마땅히 축하와 손님 접대를 해야 합니다.”¹⁷⁾

「幕後的支配者」의 주인공 阿九哥는 몰락한 지식인이다. 그는 전통적 배움과 민족의식이 있어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내 阿九嫂가 분유 두 근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처럼 갈등하는 주인공 阿九哥는 가슴에 쌓인 분노를 일기장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葉石濤는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에서 “阿九哥는 몰락한 지식인으로 本省에서 낡고 자란 돈키호테이다. 阿九哥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주의자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상당히 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나귀같이 고집이 세며, 행동의 의지는 결여되었다.”¹⁸⁾라고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물질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지배자이다. 吳濁流는 이 세력을 “막후의 지배자”라 명

17) “金岩伯, 恭喜恭喜, 賢孫個個都很聰明, 出國去將來一定爲國家, 爲民族爭光。出國深造是讀書人最高目標, 你還不曉得, 這樣的喜事應該恭賀, 應該是還要做戲請客的。”(吳濁流, 「老薑更辣」,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285쪽)

18) 阿九哥是個落魄潦倒的知識份子, 他是土生土長的本省唐吉訶德。阿九哥是個思路不清的理想主義者, 但他并非糊塗得連現實都看不清的人, 他是相當清醒的, 但他不肯屈服於現實, 他固執得如同驢馬, 缺少一股行動的意志。(葉石濤,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 『臺灣文藝』第9期, 臺灣文藝, 1965, 140쪽)

명하였는데, 이 “막후의 지배자”는 표면상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물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탐욕스러운 사회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이상 吳濁流 작품 속의 지식인 형상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식민지 통치하에서 비분강개한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으며, 무기력하게 인내할 뿐임을 볼 수 있다.

(2) 어용인사 형상

가. 대만 광복 전(1895~1945년) 어용인사

어용인사는 대만의 광복 전 시기와 광복 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본 제국주의에 편승하는 어용인사를 의미하고, 후자는 대륙출신의 중국인이 대만의 어두운 혼란을 틈타 부정부패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축재하는 기회주의자를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 어용인사는 “이대제대(以臺制臺)”정책 하에서 만들어진 어용인사이다. 일본 식민주의자는 이러한 어용인사를 이용하여 대만인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吳濁流 단편소설 중 특히 「陳大人」의 陳英慶·「先生媽」의 錢新發 형상이 이를 대표한다.

「陳大人」은 일제 강점기 일본 순사가 된 대만출신의 어용인사에 대한 내용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주의는 대만인들을 위협·제어·감시를 목적으로 일본순사에게 강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작품 속의 주인공 陳英慶은 일제 강점기 순사되어 가족과 주민들을 강탈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그 동안 대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劉舉人의 자리를 대신해 ‘陳大人’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그의 위세는 실로 보통이 아니었다.

그의 통역은 이상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잘 한다고 할 수 있어 지청장의 신뢰를 받았다. 그의 순찰능력은 타인보다 못했지만 직권은 직위를 넘어섰다. 형

사 및 특무를 검직하여 지방의 대소사에 행정이든 사법이든 탐문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신사·상인·일반시민 등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받들었다. 당시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꽃은 먹구슬나무이고, 사람이 경찰이다(花是苦楝, 人是警察)”이라 하였다. 이 말은 당초 경찰을 풍자하는 것으로 그 뜻은 일본 무사시대 “꽃은 벚꽃이고, 사람은 무사이다(花是櫻木, 人是武士)”에서, 경찰이 무사와 같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의 경찰은 마 음대로 살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의 권세가 무사와 같다는 뜻이다. 陳大人의 행위는 다른 경찰관에 비해 비견할 수 없었다.¹⁹⁾

吳濁流는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경찰제도의 어용인사인 陳大人의 형상을 만들어 새로운 통치계급을 만들었다. 그의 전형은 작품 속에서 교만함으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경찰의 힘은 절대적인거야. 만약 淸나라 시대였다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秀才가 될 수 없었어. 어느 세월에 이 정도 위치가 되겠어. 舉人도 나에게 부탁을 하니. 나 陳英慶은 부지불식간에 큰 인물이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위풍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 물어보면 예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일부러 칼 소리를 내고 큰 걸음으로 걸어 신발에서 소리 나게 해.²⁰⁾

소설의 마지막에 陳英慶은 호가호위했던 이전의 허세를 꺾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다. 이전에 陳英慶을 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더 이상 일본 어용

19) 他的翻譯雖是離奇古怪, 論起當時還算是第一流的, 所以支廳長很信任他, 因此他的得意也就可想而知了。他的巡查補不比他人, 職權超過職位, 兼刑事又兼特務, 地方上凡有大小事, 不論行政及司法他都可以過問, 所以, 紳士、商人、老百姓等都怕他, 都奉承他。當時, 不知道什麼人說出這句話, 就可以證實當日的情形: “花是苦楝, 人是警官。”這句話是當初諷刺警官的, 意思就是比擬日本武士時代的, “花是櫻木, 人是武士。”警官就像武士一樣, 愛殺人就可以殺人。當時的警官雖不能亂殺人, 他的權勢與武士是差不多的。其中陳大人的作風, 比別的警官更令人咋舌。(吳濁流, 「陳大人」,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50쪽)

20) 警察的力量是絕對的, 若是淸朝, 我即使拼命讀書, 莫說舉人, 就連秀才也考不上, 那有今日這般地位呢? 那能得舉人爺來托我說情? 想我陳英慶不知不覺做到了不起的大人物了。於是, 他在大路上走路更威風, 聳起三角肩, 遇到有人借問, 口中唔了一聲就不應了。若是遇到多人時便故意弄出劍聲, 跨起大步, 把鞋子更踏得蹬蹬作響。(吳濁流, 위의 책, 54쪽)

인사로의 순사가 아닌 평범한 중국인으로 대하였다. 陳英慶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陳大人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정이 넘어 매춘 고객 둘이 陳大人이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阿菊집으로 가자는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陳大人은 잠시 동안 화가 머리끝까지 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간이 지나 한 숨을 쉬 후, 예전처럼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단지 눈을 부릅뜨고 阿菊의 집만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바보 자식” 욕을 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²¹⁾

吳濁流의 소설 「陳大人」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대만인을 이용하여 대만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대만인 출신의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왜곡된 사회, 왜곡된 인간관계를 형성케 하여 대만인으로 하여금 현실적이나 정신적 모순상태에 빠지게 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先生媽」는 일제 강점기 황민화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썼다. 그는 작품 창작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내가 『臺灣新報』에서 기사를 하고 있을 때. 대만 총독부는 황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황민화문학을 추진하던 기간에는 쫓대 없는 대만의 문인들도 참가하여 文學奉公會의 배지를 달고는 득의양양하며 활보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을 질시했다. 나도 그들을 보고 화가 났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만대학의 쿠도(工藤) 선생이 중심이 되어, 뜻이 있는 문화인들은 매월 15일에 모여 문학에 대해 한담한다는 명목으로 시국 문제를 비밀리에 나누기도 하였다. 황민화공회본부의 고문인 대만대학의 나카무라(中村) 교수도 참여하였는데, 나는 소설 「先生媽」를 써 그에게 보여주어 그가 반성하기를 은근히 바랐다.²²⁾

21) 陳大人雖無意偷聽，因為聲音很高，自然而然地聽得很清楚。兩個嫖客半夜也沒有想到陳大人在他的面前。他們倆說著向阿菊家裏走去。陳大人越想越氣，似乎全身的血液都向上冒，感到全身發抖。但是這股怒氣不過一時而已。過了半晌，吐出一口氣來，嘆息一聲，鼓不起昔日的勇氣，只得憤恨地瞪著眼睛向阿菊家的方向看了又看。半晌罵一句“巴迦野郎”，不得已依然拖著重重的腳在黑暗中蹣跚地走了。(吳濁流, 위의 책, 65쪽)

22) 當時我在臺灣新報做記者，臺灣總督府極力推行皇民化運動，在推行皇民化文學期間，軟骨頭的本島人文士亦有參加，掛着文學奉公會會章，得意揚揚，闊步橫行，令人側目，我看到敢怒而

작품 속의 주인공인 의사 錢新發은 어린 시절 가난한 삶 때문에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 후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하여 부유한 아내와 결혼을 한다. 처가 삼촌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하게 되고, 처가 삼촌들의 사회적 도움으로 의술계에 유명세를 타게 된다. 그는富力 추구를 위해 일제 강점기 일본의 황민화운동 정책에 순응하는 일본식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先生媽는 대만 말과 대만식의 사회습관을 고수하는 평범한 대만 아줌마 삶을 고수한다. 이 소설 속에는 일본식의 삶을 사는 아들인 錢新發과 대만식의 삶을 고집하는 先生媽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묘사되었다.

대만인의 창씨개명 중 그는 가장 먼저 창씨개명을 하였다. 일본정부가 대만인의 창씨개명을 허가할 때 그는 그의 이름을 金井新助라 개명하고, 그 즉시 새로운 명패를 걸었으며, 그 가족들은 “기모노”를 입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오랫동안 입었던 의사가운 역시 벗어버렸다. 이외에 전통 일본식의 집을 짓고, 집이 완공될 즈음에 너무 기뻐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도 “기모노”를 입기를 희망하였으나, 선생의 어머니는 “기모노” 입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대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金井新助는 마음속으로 유감이었으나 말을 할 수 없어 화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선생 어머니는 사진을 찍고 난 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당시 준비된 “기모노”를 가위로 모두 잘라버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의 어머니가 노망이 난 줄 알고 크게 놀랐다. “이러한 물건을 남겨놓으면 내가 죽었을 때 내게 입혀 줄 수 있다, 만약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조상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²³⁾

不敢言。一方面有志於文化人，以臺大工藤先生爲中心，每月十五日集會，以開談文學爲名，有時也拿出時局問題來私語。皇民化公會本部顧問臺大中村教授亦來參加，于是我寫這篇「先生媽」小說給他看，暗中希望他反省。(吳濁流，『泥沼中的金鯉魚』自序，『吳濁流文學讀本』，苗栗：西湖鄉公所，1975，40쪽)

- 23) 臺灣人改姓名也是他爲首。日本政府許可臺灣人改姓名的時候，他爭線恐後，把姓名改爲金井新助。馬上掛起新的名牌，同時家族開始了穿“化服”的生活。連他年久愛用的公醫服也丟開不問。同時又建築純日本式的房子。這個房子落成的時候，他喜歡極了，要照相作紀念。他又想要母親穿“化服”，奈何先生媽始終不肯穿，只好仍然穿了臺灣服拍照。金井新助心中存了玉石同架的遺憾，但他不敢說出來，只得自惱自氣著。然而先生媽拍照後，不知何故，將當時準備好的化服，用菜刀亂砍斷了。傍人唸得大驚，以爲先生媽一定是發了狂了。“留著這樣的東

다음은 先生媽의 장례식장에서의 내용이다.

삼일 제가 되자 병상이 악화되어 선생의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新助는 矯風 회장으로 유언에 따르지 않고 대만의 승려 없이 신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은 매우 많아서 郡守, 街長 등 유력인사들 중 어느 하나 오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 속에 선생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新助조차도 슬퍼하지 않고 이 장례식을 단지 하나의 일로 여겼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그 중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늙은 거지였다. 관이 나가는 날 그는 가까이 설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멀리서 선생 어머니의 영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매일 15일 만 되면 그 거지는 향과 지전을 가져와 선생 어머니의 앞에서 태웠다. 향을 피우면서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 선생 어머니, 당신도 나와 같군요. 24)

吳濁流는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의사와 그 어머니의 서로 다른 생각을 대비와 풍자의 방식으로 대만인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전개하였다. 소설의 마지막에 거지가 先生媽에게 “선생 어머니, 당신도 나와 같군요.(先生媽, 你也和我一樣。)”의 의미는 비록 先生媽의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만 내심의 고독은 거지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표현하였다.

나. 대만 광복 후(1945년~) 어용인사

1945년 대만은 “포츠담선언”으로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전의 어용인사는 사라지고, 광복 후의 새로운 어용인사가 나타났다. 광복 후

書, 我死的時候, 恐怕有人給我穿上了, 穿上這樣的東西, 我也沒有面子去見祖宗。”(吳濁流, 「先生媽」,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28쪽)

24) 到了第三天病狀急變, 先生媽忽然逝去。然而新助是矯風會長, 他不依遺囑, 葬式不用臺灣和尚, 依新式舉行。會葬者甚衆, 郡守、街長、街中的有力者沒有一個不來。然而這盛大的葬禮, 沒有一個人痛惜先生媽, 連新助自己也不覺悲痛, 葬禮不過是一種事務而已。雖然這樣, 其中也有一個人真心悲痛的, 那就是老乞丐。出喪當日, 他不敢近前, 在後邊遙望先生媽的靈柩啼哭。從此以後, 每月十五日老乞丐一定辦香紙, 到先生媽的前燒香。燒了香, 老乞丐看到香煙繚繞, 不覺淒然下淚, 嘆一口氣說: 呀! 先生媽, 你也和我一樣。(吳濁流, 위의 책, 36쪽)

초기 대만에서는 중국 국민당 정권으로 귀속되는 과정 속에서 정권의 불안정한 틈을 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어용집단이 나타났다. 吳濁流 단편소설 중 그 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波茲坦科長」의 范漢智·「狡猿」의 江大頭 등 있다.

「波茲坦科長」은 1945년 “포즈담선언”이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온 포즈담 장군·포즈담 정치가·교수 등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에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이들이다. 吳濁流는「波茲坦科長」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 세계 십여 억 명이 유혈이 낭자한 전투에 임할 때 선고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포즈담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저술할 수 있다. 포즈담장군, 포즈담정치가, 포즈담박사, 포즈담교수, 포즈담벼락부자, 포즈담사장 등등이 그 내용이다. 우리들의 포즈담과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의 용모와 목소리는 달라도 역사적인 산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⁵⁾

주인공의 이름은 范漢智이다. 그의 인생철학은 “돈 앞에는 도덕도 없다.(在金錢之前, 是沒有道德的。)”이다. 그는 중국 대륙에서 특무공작원으로 활동하다 대만으로 건너와서 불법으로 적산가옥을 불하받는 등 부정축재를 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만에 온 후 이름을 范新生이라 개명하고, 사리사욕을 기탄없이 채워나가며 玉蘭과 이성교제를 한다. 당시 대만인은 중국 대륙을 동경하는 하는 마음이 있었고, 대만인인 玉蘭은 중국 대륙에서 온 멋진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까지 하게 된다. 玉蘭은 처음에 范漢智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적산가옥을 접수하고, 밀수를 하고, 관인을 위조하고, 불법 벌목을 하는 등 온갖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

25) 在這個世界裏, 最偉大的事物也許要算是波茲坦宣言了。因為它是正當全世界, 十數億人在瘋狂地流血流淚在鬭爭的時候, 被宣告出來的。因了它, 著實產生了好些東西, 曰: 波茲坦將軍, 曰: 波茲坦政治家, 還有波茲坦博士, 波茲坦教授, 波茲坦暴發戶, 波茲坦社長等等。而我們的波茲坦科場也正是其中之一。他的容貌聲色雖不無有異之處, 而其為可喜可賀的歷史的產物, 卻是無可置疑的。(吳濁流, 「波茲坦科長」,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133쪽)

로, 머지않아 대만을 떠나 홍콩으로 가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부정부패한 范漢智는 결국 수사대에 체포되고 만다. 수사대의 수사대장은 范漢智의 경력을 보다 그가 복벌에도 참가한 바 있고, 항전 초기 특무공작을 통해 혁혁한 공이 있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范漢智는 매국노의 죄명으로 체포된 상태였지만, 스스로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국하여 영광을 본 것을 漢奸이라 한다면 공직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²⁶⁾

吳濁流는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이를 야기한 원인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회의는 작품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실패한 친구들을 세어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다. 매국노 10명, 탐관오리 18명,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비서가 실실 웃으며 앞으로 걸어오며 “축하합니다.”라 하였다. 대장이 范漢智를 체포한 것을 축하하며 실실거리며 웃는 모습이 范漢智와 같았다. 순간 사무실안의 모든 직원들은 말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실실거리는 동료들의 모습도 누구를 막론하고 매국노나 횡령꾼들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어서 역겨워졌다. 수사대장은 결국 “사역 오천만, 어찌 이렇게 많은 매국노와 탐관오리가 있을 수 있을까”하는 착각을 일으켰다.²⁷⁾

「狡猿」의 주인공 江大頭는 일제 강점기에 사회 하층계층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원래 가짜 약을 파는 떠돌이이다. 광복 초기 혼란한 틈을 타 사기수단으로 큰 재력을 모으고, 이후 鄉民 대표에서 省 의원이 된다. 이 당

26) 賣國求榮的是漢奸，可是借公家的名騙人爲私的到底是什麼呢？(吳濁流，위의 책，201쪽)

27) 數一數失敗的竟多得使他一怔，漢奸十人，貪官十八人，吃了一驚把眼睛打開來。秘書笑嘻嘻的走了前來。“恭喜，恭喜。”對隊長逮捕犯漢智歸案道喜，笑嘻嘻的樣子不論怎樣看跟犯漢智完全一樣。忽而看見辦公室裏的全部職員不說，甚至工友也同樣笑嘻嘻不論那一個人的臉都跟過去所檢舉的漢奸或貪污的臉相像，真使人厭惡。搜查隊長竟發生“四萬萬五千萬，怎麼會有這麼多漢奸和貪污呢”的錯覺。(吳濁流，위의 책，203쪽)

시 省 의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원,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지금의 의원은 완전히 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생선완자라 하지요.” …… “의원은 원래 사람들을 대표해 정부를 감독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도모해야 합니다. 그의 책임은 막중하고, 그의 사명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의 명성은 천길 낭떨어지에 떨어졌습니다. 그 비열함은 불량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위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공직자는 그의 권세를 빌어 일을 합니다. 관영기업의 사장은 의원이 오면 반드시 예의를 표해야 하고, 부탁한 일은 모두 들어줘야만 합니다. 가장 실세인 경찰마저도 그들을 꺼려 노여움을 사게 하지 않습니다. …”²⁸⁾

江大頭의 인식에는 황금만능사상이 지배적이다. “돈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력이 있다. 3만 6십 조항의 육법전서에는 각 조항마다 이치가 있다. 그러나 황금만능주의만 못하다. 지금은 황금만능의 시대로 모든 나라가 이루어진다. 완벽한 일본 법률을 보라. 금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상 쟁탈자는 모두 돈이다. 돈이 있어야 하늘도, 땅도 무섭지 않다.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 법외에 존재할 수 있다. 법망은 천망과 같지 않는다. 천망은 셀 틈이 있으나, 법망은 셀 틈이 있다.”²⁹⁾ 고 하였다.

소설의 마지막에 江大頭는 情治部에 체포를 당한다. 吳濁流는 체포되는 과정과 심문내용 및 경위에 대하여 소설 속에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지만, 소설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여운을 남겼다.

28) “議員,有什麼了不起,現在的議員完全沒有骨頭,所以怪不得人家叫魚丸魚丸。” …… “議員本應代表人民監督政府,爲人民謀幸福。他的責任是何種重大,他的使命是何種神聖,但現在議員的聲價,貶落千丈,其卑鄙者有不殊於惡棍。只會利用其地位做牽猴仔生意,官家也要賣他的面子,也要敷衍他。官營公司的經理,看見議員來到,也得畢恭畢敬。凡有所拜託總是唯唯諾諾而已。不但如此,連最有勢力的警官也要忌他們幾分,不敢得罪, …” (吳濁流,「狡猿」,『吳濁流集』,臺北:前衛出版社,1991,109쪽)

29) “錢有移山之力,六法全書有三萬六千條,條條有理,但不如金條之萬能,現在是金條世界,各國都是這樣,你看日本法律怎麼完備,金條一道都可開關。社會上所爭奪者都是金錢,有了錢,天不怕地不怕,任人抨擊也不會垮,可以逍遙法外,法網不似天網,天網疏而不漏,法網漏而不疏。”(吳濁流, 위의 책, 91쪽)

대략 삼년이 지나는 어느 날, 어느 낮선 사람이 길을 가다 明湖村의 노점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江大頭는 일찌감치 도망갔어요. 지금 재산도 일본으로 가져갔구요. 그는 범망을 피해 빠져나갈 방법을 잘 압니다. 그는 손오공 같은 능력이 있지요.” 듣는 이는 놀랐다. 이 소식은 정확하지는 않았다. 天生伯과 張씨도 몰랐다.³⁰⁾

葉石濤는 「吳濁流論」에서 吳濁流의 「狡猿」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吳씨의 모든 작품 중 『亞細亞의孤兒』을 제외하고, 가장 잘 된 것으로 「狡猿」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전쟁 후 나타난 신노예를 묘사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 대만인의 식민지 성격의 열등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풍자의 수법으로 전쟁 후 대만사회 및 생활에서의 저급성과 인성의 부패함을 표현하였다.”³¹⁾

(3) 여성 형상

단편소설 중 대표적인 여성형상으로 「水月」중의 蘭英·「泥沼中的金鯉魚」의 月桂·「波茨坦科長」의 玉蘭을 뽑을 수 있다. 「水月」주인공 仁吉의 아내 蘭英은 대만의 전통 부녀자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양육하고 돼지·닭·오리를 기른다. 또한 오후엔 밭을 매면서 마음속으론 집안의 아이들과 나무 아래 어린아이를 생각한다. 저녁에 돌아온 후 11시 12시까지 모자를 짜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속의 蘭英은 한 마디 불평도 없다. 吳濁流는 蘭英의 모습을 “건조한 모발, 앙상한 얼굴, 튀어난 광대뼈, 창백한 안색, 함몰된 눈동자, 눈가의 많은 주름, 화장을 해보지 않은 얼굴, 찾아볼 수 없

30) 大約隔了三年。有一天，來一個陌生的過路客，在明湖村的路店休息。他說：“江大頭老早溜了。現在連財產全部帶去日本，仍然搞內行地下道，大歪大發，逍遙法外，他確有孫大聖的本事。”聽者愕然。這個消息有正確性，連天生伯及老張都不知道的。(吳濁流，위의 책, 176쪽)

31) “吳老的所有作品除『亞細亞孤兒』之外，我以為寫得最好的是「狡猿」。這篇小說描寫戰後出現的新奴才，刻畫了臺灣民衆在日據時代養成的殖民地性格的劣根性，以諷諭的筆觸成功地挖掘了戰後不久的臺灣社會，生活品質的低落及人性的腐敗。”(葉石濤，『臺灣文學的回顧』，臺北：九歌出版社，2004，58쪽)

는 혈색.”³²⁾이라 묘사하였다.

당시 대만인과 일본인 사이 임금 및 대우상의 차이로 대만인들의 꿈은 사라지고 현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을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보, 결혼한 이후 몽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구요? 지금 큰 애 阿堅이 올해 6학년이고, 곧 중학에 가요. 아직까지 동경에 유학가려는 몽상을 가지고 있으니, 생각해봐요, 애들과 당신 학비를 …… 그녀의 말끝은 점점 흐려져만 갔다. 무의식 속에 눈물이 흘러내렸다.³³⁾

仁吉의 아내 蘭英은 타협할 수 없는 현실에 다른 방법이 없어 눈물을 흘릴 뿐 어찌할 바가 없었다. 吳濁流는 蘭英의 생활을 통해 중국전통 부녀자들이 보기엔 나약해보이지만 무한한 참을성이 갖고 가정의 지주역할을 하는 중국의 하층 부녀 형상을 묘사하였다.

「泥沼中的金鯉魚」속의 주인공 月桂는 여성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지식인으로서 일반적인 전통여성과는 달랐다. 그녀는 사회적 관념인 남성은 돈만 있으면 여성의 자존감은 중요시 않는 당시 대만의 일반화된 남성우월주의의 불합리한 봉건적 상황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저항하였다. 더 나아가 여성의 혼인 자주권 주장과 전통 매매 혼례에 대한 반대 등 시대적 상황에 대해 여권운동을 제창하였다. 吳濁流는 이 작품을 통해 이러한 여성의 인권상황을 밝혔다. 작품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삼촌이 거액의 자참금을 받고 그녀를 부자의 첩으로 팔려고 하자, 臺北으로 도망친다.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녀의 저항의지를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

32) “瘦削的臉孔，顴骨高聳，臉色青黃，眼珠陷入很深，眼角的皺紋重重。仁吉愈看愈怕，未經打扮的臉孔，全無血色。”(吳濁流, 「水月」, 『吳濁流集』, 臺北: 前衛, 1991, 13-14쪽)

33) 我的先生，你結婚以來抱著的美夢還沒有醒嗎？你想，現在大兒子阿堅今年唸六年級，不久就要上中學，你還在夢想去東京留學。你想，你的孩子，你自己的學費 …… 她的聲尾漸漸低下，不知不覺地淚珠直流。(吳濁流, 위의 책, 7쪽)

그렇게 의지가 없으니 …… 모두 눈물을 속으로 삼킨다. 그러면 영원히 남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성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단연코 반대한다. 어떤 일이 있든지 투항하면 안 된다. 그런지 아닌지 말해보라. 기다려봐라! 이기적인 삼촌.³⁴⁾

그러나 불행하게도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임시직을 제공한 사장의 함정에 빠져 정조를 잃게 된다. 月桂는 사장에게 복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제 강점기 대만 사회에 여성운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살? 아니 복수, 복수만이 살 길이야. 그녀는 기숙사에 앉아 다시 복수의 방법을 생각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녀는 갑자기 모든 사회가 수렁과 같았고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도덕한 이가 어찌 사정한 사람뿐이겠는가. 모두가 똑같다. 만일 복수를 할 때 이 나쁜 놈 하나에게만 복수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일 뿐이고, 이러한 보복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복수를 하려면 통쾌하게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경시를 당하는 여자들을 위해 여권운동을 제창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야.” 그녀는 결국 문화협회에 참여하여 선각 여성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심하였다.³⁵⁾

「波茲坦科長」의 주인공은 대만인 출신의 玉蘭이다. 당시 대만인은 광복 후 중국 대륙을 조국의 품으로, 일종의 귀속감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의 투영으로 작품 속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34) 那樣沒有志氣 …… 大家都把眼淚往肚裏吞, 那就永久無法由男人手裏解放出來呀。對男人的胡來亂做我要斷然反抗, 不論有什麼事決不投降, 你說應該不應該。等着瞧吧! 我那自私的叔父。(李喬編, 「泥沼中的金鯉魚」, 『吳濁流文學讀本』, 苗栗: 西湖鄉公所, 2004, 71-72쪽)
- 35) 自殺, 不, 報仇, 只有報仇這條路可走。可是她回到公寓坐定, 再繼續想著復讐的方法, 想來想去, 忽然發現整個社會像泥沼一樣, 污波濁浪滾滾不息, 實在叫人吃不肖。像這樣不道德的社長豈止一人, 千千萬萬比比皆是, 要報仇的話, 單單報復這個壞傢伙, 祇不過是私仇而已, 這樣報仇法不算本事。要報仇也要報復得痛快, 才有目的。(…) 內心自問自答著: “我應該獻身為被人欺負, 被人污辱, 被人歧視的婦女們提唱女權運動, 才有價值。” 她決心參加文化協會和先覺女士共同奮鬥。(李喬編, 위의 책, 79쪽)

특히 玉蘭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듯 한 충동이 일어나 빨리 조국의 군대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긴 뺨과 같이 늘 어선 시민들의 환영대열만 앞 찼다. 玉蘭은 두 발이 저리기까지 했다. (...) 꿈에서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과 같았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키워진 아이가 생부와 생모를 만난 듯 했다. 설사 그의 부모가 동양을 구하는 이틀일지라도³⁶⁾

이처럼 臺灣省 출신인 玉蘭은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外省人 출신인 范漢智와 결혼한다. 그러나 吳濁流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고 않고 교묘하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范漢智의 비열함을 통해 점차 동경이 실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는 일본 침략을 받은 중국의 한 부산물로서 일제 강점기 淪陷區 중국인의 추태를 대표한다. 玉蘭은 이러한 范漢智를 보고 결혼의 과정을 반성하고 여성으로서의 고민과 각성을 한다. 玉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玉蘭이 간호사였을 때 일찍이 일본의사가 그녀에게 청혼 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젊고 잘 생겼으며 교양이 있었고, 또한 의학박사로 후에 대학교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애정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어떠한 것들의 방해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남자는 현재의 남편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부족하지 않았고 어찌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왜 자신은 현재의 남편을 사모하게 된 것인지 그녀 자신도 정말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광복 당시의 감정이 생각났다. 조국! 아. 그것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욱 친근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이 굳어져 남편에 대한 동경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아! 결국 나 역시.....³⁷⁾

36) 尤其是玉蘭心裏有了一個像孩子戀慕媽媽似的衝動，希望早一刻看到祖國的軍隊，但是左等也不來，右等也不來，只有市民的歡迎隊伍像長蛇似的開過去，玉蘭站得雙腳都麻木了。(…)正如夢寐以求的願望忽而實現的時候一樣，雖然所得到的外觀不是什麼好的，可是心裏總有說不出的滿足感，於是眼淚不知不覺地溢滿眼中。好像被人收養的孩子遇上生父生母一樣，縱然他的父母是個要飯的……(吳濁流，「波茨坦科長」，《吳濁流集》臺北：前衛出版社，1991，138쪽)

37) 她在做護士的時候，曾經有日本醫師向她求婚。他很愛她，她也並非對他沒有意，又年輕又漂

일제강점기 탄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대만인의 마음속에 조국인 중국 대륙에 대한 동경이 바로 外省人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복 후 동경의 대상이었던 중국 대륙의 外省人이 대만에서의 착취는 바로 조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표출되었다. 吳濁流는 작품 끝에서 대만에 대한 착취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하였으나, 광복 후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外省人으로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동경과 희망이 환멸의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이 작품을 통해 토로하였다.

(4) 하층계층 형상

광복 후 대만을 점령한 국민당 정부는 인사면에서 공공기관에 대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였지만 모두 낮은 임금에, 저급한 일만 담당하였다. 광복 후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해 옴으로써 대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은 1949년까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날로 증가되어 물가지수는 7천배나 높아만 갔다. 吳濁流는 1947년 대만의 상황을 『臺灣連翹』에서 “원래 정부와 국민당은 모두 대만인을 믿지 않았다, 일본인보다 더 관료화되어 일종의 우월감을 가졌다. 횡령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대다수가 국가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만을 생각했다. 일본으로부터 인수하는 일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화폐를 난발하여 날이 갈수록 통화가 팽창되어 물가가 비상했다. 12월24일 臺南의 소식에 의하면 쌀 한 되가 백 원을 넘었다고 한다. 사망에서 곡성이 울려 外省人을 ‘돼지(豬)’라 칭했다.”³⁸⁾라 하였다. 吳濁流중 하층계층을 그린

亮又有教養，而且又是醫學博士，將來當大學教授是有希望的。但是不曉得怎麼她的愛情被自己潛意識的某一種東西阻碍著沒有發展。現在想起來那個男人較現在的丈夫決不會差，也許還優秀得多。然而....到這兒，爲甚麼自己會思慕現在的丈夫，她真是百思不解。她忽然想起光復當時的心情，祖國！唉。那是較自己父母還更親的話。她想出了是那個感情凝結起來成爲丈夫的憧憬。唉！自己到底也是....(吳濁流，위의 책, 186쪽)

38) “原來，政府和黨都完全不信任臺灣人。比日本人更官僚化，又有一份優越感，自然弄得一團糟。貪污是家常便飯。多數只能爲私利私益著想，國家利益根本不當回事，因而接受工作紛爭

작품 중 대표작으로 「三八淚」·「牛都流淚了」등이 있다.

「三八淚」작품 속의 주인공 牛皮哥는 외세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외진 곳에 사는 청년으로, 그는 결혼을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돈을 모았다.

피부가 타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졌다. 끝내 피부가 타도 벗겨지질 않아 소가죽처럼 되었다. 이렇게 열심이 일 한 牛皮哥는 겉으로 볼 때 단지 일만 알지 다른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생각하는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처자와 결혼을 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첫 번째가 돈이다. 돈이 없으면 거지 신부라도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는 저축을 최우선으로 하였다.³⁹⁾

당시 대만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 이에 국민당 정부는 대만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만의 화폐를 대폭 절하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대만의 화폐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대만 민중의 고통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고통 받는 민중의 아픔을 吳濁流는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牛皮哥, 상심하지 말게. 4만원을 1원으로 바꾸는 것은 3천만의 대만 사람 모두가 같다네. 이미 지난일은 덮어두게. 구태여 상심할 필요가 있는가.” 이어 누군가 말하였다. “牛皮哥를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 똑똑한 사람들은 광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법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광복으로 인해 손해를 봐 미칠 지경이네.” “당시 혼자 손해 본적이 없다고 남들을 비웃는군. 당시에 모두가 손해를 보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다른 사람이 콧방귀를 끼며 달려들어 말했다. “나는 어디 손해 볼 돈이라고 있었겠니? 신화폐로 바뀌야 했을 때는 고작 오백 원짜리 옛날

迭, 又因濫發紙幣, 通貨日日膨脹物價飛騰。十二月二十四日, 來自臺南的消息, 白米一斗終於衝破一白元大關。於是責難之聲四起, 終於以‘豬’來外省人了。”(吳濁流, 『臺灣連翹』, 臺北: 草根出版社, 1995, 158쪽)

- 39) 晒得皮脫了一次又一次。到後來任晒皮也不再脫了, 變成牛皮一般。這樣老實的牛皮哥表面上看來, 只是僅知做工絕不會有其他的心思的, 可是他的內心卻不是那麼簡單。他也有一個希望時時刻刻纏繞著他? 朝思夕想地要娶一個老婆來造成一個美滿幸福的家庭。可是, 窮苦人要娶老婆, 就不是件容易的事, 第一要錢, 沒錢連乞丐婆也娶不到。所以;他最先就著手計劃儲蓄。(吳濁流, 「三八淚」,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124쪽)

화폐 한 장만 남아 그것을 가지고 환전한다고 해도 10전도 안되더군. 그래서 그냥 가져와 벽에 붙였더니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고 영원히 후세들에게 기념으로 남겨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牛皮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이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봤지!”⁴⁰⁾

「牛都流淚了」속의 주인공 阿古頭는 차 말을 운영하였으나 차값이 계속 떨어져 심사숙고 끝에 낙농업을 하게 된다. 우유회사에서 우유를 대량 구입해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한다. 그러나 원유의 수입으로 인해 젖소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정육업자에게 소를 팔려고 계약금까지 받는다. 이에 기르던 소는 밥도 안 먹고, 급기야 阿古頭의 아들 阿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운다. 이를 본 阿忠은 할아버지 阿清伯에게 이를 알리자 할아버지 阿清伯는 阿古頭에게 정육업자에 소를 파는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정육업자는 소를 인도하는 날짜에 와서 인도를 요구하지만 阿忠의 할아버지는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그 결과 싸움이 일어난다. 이를 본 楊 의원이 중재를 나서 계약을 취소하는데 이른다. 작품 말미에 여성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현재 많은 관원들은 서양을 숭배한다. 그들의 눈에 낙농인이 있겠는가? 낙농업은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들은 본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높은 관세를 요구하였다. 듣기 좋은 말로 “국민건강을 보호 한다” 혹은 “한 집만 가난하면 된다”고 한다. 낙농정책을 보호하는 것이 어찌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분유상인의 이윤을 위한 사심 때문이다. 자동차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가하면 각 자동차마다 5,6만원의 거액을 벌 수 있다. 지금 전국의 수천 낙농업의 어려움을 보호하는데 관원들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⁴¹⁾

40) “牛皮哥，不要傷心，四萬兌一，大眾三千統統一樣，了就了啦，何必傷心。”接着有人說：“想起牛皮哥，實在也怪可憐的，聰明人曉得發光復財，他却賠光復錢賠到發狂。”“你自己就沒有賠過，反來笑人。當時大家道不是賠得眼淚倒流?”另一個哼了，搶着說“我雖賺雖食，那裏有閑錢去賠呢?不過到了換新臺幣的時候，只剩下一張五百塊的舊臺幣，拿去換也換不到一毛錢，索性大大方方拿來貼壁，到今還可以看看，也可以永久留給後人做紀念。可是不僅牛皮哥一個人，像你們有錢人也是吃了虧吧!”(吳濁流，위의 책，126쪽)

41) 現在的許多大員，崇洋，拜洋成性，眼中那有酪農呢?酪農要死了，他們還在公開反對提高關

위와 같은 시대상에 대해 吳濁流는 또 阿古頭의 말을 빌어 당시의 세태를 아래와 같이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阿古頭는 소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 우리들도 그를 동정해 죽이지 않는데, 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우리들 기다리게 하는가? 아, 낙농업은 끝났다.”⁴²⁾

4. 나오는 말

吳濁流는 1936년 『臺灣新文學』잡지에 그의 처녀작인 「水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973년 그의 마지막 작품인 『臺灣連翹』를 완성하면서 38년 간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일제강점기·2차 세계대전·광복·國民黨 정부의 점령 등등 현대사의 중요사건을 겪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대만 광복초기를 연결하는 시기에 활동한 대만의 중요 작가이다.

吳濁流의 단편소설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문학의 예술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의 단편소설에는 인물의 심리 및 감정변화의 미묘함에 대한 표현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하여 葉石濤는 「吳濁流論」에서 吳濁流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그의 작품은 농후한 사회성을 갖게 되었지만, 예술적 향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葉石濤는 吳濁流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회성과 예술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작품의 독특한 풍자와 해학 기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도 있다.⁴³⁾ 그리고 吳濁流는 葉石濤 시각

稅, 保護本國生產者。美其辭曰“保護國民健康”或說“寧願一家窮, 不應一路哭”的話, 令不寒而慄, 保護酪農政策豈致危害國民健康呢, 其實只是爲了私心, 被奶粉商人利用而已! 例如爲保護一家汽車公司提高關稅, 使其每輛汽車可獲五、六萬之巨利。現在爲保護全省數千戶的酪農的急切問題, 卻被他們延擱起來, 這樣做法, 有心人實在不忍再說了。(吳濁流, 「牛都流淚了」, 『波茨坦科長』, 臺北: 遠景出版社, 1993, 280쪽)

42) “阿古頭想, 牛會流淚, 我們同情牠, 不殺牠, 爲什麼有地位的人不同情我們, 也沒有目屎, 一定要等我們 … 啊, 啊, 酪農完了。”(吳濁流, 위의 책, 281쪽)

에 대해 “내가 소설을 쓰는데 여기에 단점이 있다. 내가 쓴 소설은 사회성을 중시하기에 어쩔 수 없이 소설 중 인물의 내면생활을 소홀히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따라갈 수가 없다.”⁴⁴⁾라 함으로써 그 비판을 일정 부분 수긍했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의 서로 다른 시대를 겪은 吳濁流는 자기의 단편소설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 초기까지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나 친일파의 존재, 일본에게 받게 되는 차별대우, 대만인의 무력함 등등 대만사회의 면모를 탐색했고, 또한 광복 후의 국민당 통치 시기 外省人들의 정치적·경제적 독점 및 민생의 곤란 등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관과 창작정신을 표출했다. 문학은 사실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진상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으며, 吳濁流의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대만 식민생활과 2차 세계대전하의 공포, 광복 후의 사회동란 및 경제공황 등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경찰제도·保甲제도·황민화운동·경제약탈 등등 식민지배의 실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식민 지배하에 처한 대만 지식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吳濁流의 작품은 대만의 주체의식과 대만인의 보편적인 걱정과 고민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이 점을 葉石濤는 『臺灣鄉土作家論集』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세심한 과학자 같이 빛나는 수술 칼로 비열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병폐를 지적하고, 밤과 같은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어 더러운 머릿속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또한 풍자와 해학의 수법으로 그들의 욕망과 야심, 사기와 무인성의 진상을 정확히 기록하였다.”⁴⁵⁾ 松竹은 「吳濁流作品

43) 葉石濤, 「吳濁流論」, 『臺灣文藝』12期, 1966, 76쪽.

44) “我寫的小說的短處即在此, 我寫的小說因為重視社會性, 自然而然稍於忘却小說中的人物的內面生活。我因此一言, 今天還在這方面努力, 可是, 還是追而不及的。”(「覆鍾肇政君一封信」, 『臺灣文藝與我』, 臺北: 前衛出版社, 1977, 14쪽)

45) “猶如一個細心的科學者, 手持明晃晃的解剖刀, 針對那些卑鄙不堪的人們, 指出他們的病竇, 挖出他們黑暗如夜的心腸, 唯利是圖的骯髒腦袋。並要以諷刺又諧謔的手法正確的記錄下他們的欲情、狡詐、阿諛、鐵石心腸, 和無人性的種種實相。這些事, 濁流先生都做到了, 而且做得很成功。”(葉石濤, 『臺灣鄉土作家論集』, 臺北: 遠行出版社, 1981, 122쪽)

論」에서 “근대문학은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는 공통의 방향을 지닌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작품 중에 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고, 많은 독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는 향토소설이 아닌 것이 없다. 吳濁流선생의 저작인 소설선집은 바로 전형적인 이러한 작품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대만 동포의 처지를 충실하게 서술함으로써 일반 향토사회의 상황을 반영했다. 그의 작품은 사실적 풍격으로 당시 대만인의 생활상을 기록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역사적 진실한 증거이다.”⁴⁶⁾ 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46) “近代文學有一種反映現時社會的共同趨向。而在各類作品之中最能達到此一目標，且易為廣泛讀者所接受者，又非鄉土小說莫屬。吳濁流先生所著小說選集，正是這種典刑作品；他忠實地寫下日據時代臺灣同胞的遭遇，反映出一般鄉土社會的情形。作品以寫實的風格，紀錄下當時臺灣人的生活狀況，是日據時期歷史的真實見證。”（松竹，「吳濁流作品論」，《出版家》52期，1976，62쪽）

參考文獻

- 吳濁流,『吳濁流選集』,臺北:遠行出版社,1977.
- ,『臺灣連翹』,臺北:前衛出版社,1991.
- ,『無花果』,臺北:前衛出版社,1988.
- ,『亞細亞的孤兒』,臺北:草根出版社,1995.
- 吳濁流著,彭瑞金編『吳濁流集』,臺北:前衛出版社,1991.
- 張良澤編,『吳濁流作品集』(1)-(6),臺北:遠行出版社,1976.
- 林瑞明,『臺灣文學的吳歷史考察』,臺北:允晨文化,1996.
- 藍博洲編,『吳濁流的西湖歲月』,苗栗縣:西湖鄉公所,2004.
- 白少帆,『現代臺灣文學史』,沈陽:遼寧出版社,1987.
- 呂新昌,『鐵血詩人吳濁流』,臺北:臺灣文藝,1984.
- 呂正惠,『植民地的傷痕』,臺北:人間出版社,2002.
- 呂正惠等編,『臺灣新文學思潮史綱』,臺北:人間出版社,2002.
- 葉石濤,『臺灣鄉土作家論集』,臺北:遠行出版社,1981.
- ,『一個臺灣老作家的50年代』,臺北:前衛出版社,1991.
- ,『臺灣文學史綱』,高雄:文學界雜誌社,2003.
- ,『臺灣文學的回顧』,臺北:九歌出版社,2004.
- 王德威,『臺灣從文學看歷史』,臺北:麥田出版,2005.
- 李喬編,『吳濁流的文學讀本』,苗栗縣:西湖鄉公所,2004.
- 李筱峰,莊天賜編『快讀臺灣歷史人物』,臺北:玉山社,2004.
- 林瑞明,『臺灣文學的歷史考察』,臺北:允晨文化,1996.
- 莊萬壽等編,『臺灣的文學』,臺北:李登輝學校,2004.
- 錢鴻鈞編,『吳濁流致鍾肇政書簡』,臺北:九歌出版社,2000.
- 賴澤涵,馬若孟,魏萼,『悲劇性的開端——臺灣二二八事變』,臺北:時報文化,1993.
- 河原功,『臺灣新文學運動的展開』,臺北:全華,2004.
- 何欣,『當代臺灣作家論』,臺北:東大圖書公司,1999.
- 黃重添等著,『臺灣新文學概觀』,臺北:廈門鷺江出版社,1992.

- 가토 후미요시, 안소영 역, 『대일본제국붕괴』, 바오출판사, 2010.
- 吳濁流, 「文學就是文學,不是工具」, 『臺灣文藝』11期, 1966.
- _____, 「對文學的一二管見」, 『臺灣文藝』46期, 1975.
- _____, 「『泥沼中的金鯉魚』自序」, 『吳濁流文學讀本』, 苗栗: 西湖鄉公所, 1975.
- _____, 「覆鍾肇政君一封信」, 『臺灣文藝與我』, 臺北: 前衛出版社, 1977.
- 松竹, 「吳濁流作品論」, 『出版家』52期, 1976.
- 簡義明, 「吳濁流研究現況評介與反思」, 『臺灣文藝』, 1997.
- 邱靖莉, 「日據時期臺灣知識分子的處境」, 『社會科教育學刊』, 1994
- 歐宗智, 「吳濁流性格的矛盾與掙扎--讀『無花果』與『臺灣連翹』」, 『臺灣圖書館管理季刊』, 2006.
- 老漢, 「吳濁流的報道文學」, 『夏潮』, 1976.
- 稻禾, 「鐵和血和淚鑄成」的吳濁流, 『臺灣新文學概觀』, 1992.
- 藍建春, 「胡太明的祖國經驗」, 『臺灣文學研究通訊』, 1997.
- 呂新昌, 「談吳濁流小說的翻譯--專訪林鍾隆老師」, 『臺灣文藝』, 2001.
- _____, 「淺談吳濁流的文學思想」, 『萬能學報』, 1993.
- 呂正惠, 「被歷史命運播弄的人們- 論吳濁流『亞細亞的孤兒』」, 台灣文學經典研討會論文, 1999.
- 呂興昌, 「正義的化身吳濁流的新路歷程」, 『臺灣文藝』, 2000.
- 葉勳儀, 呂新昌, 「『鐵血詩人吳濁流』評介」, 『竹塹文獻雜誌』, 1997.
- 葉石濤,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 『臺灣文藝』第9期, 1965.
- _____, 「吳濁流論」, 『臺灣文藝』12期, 1966.
- 葉笛, 「吳濁流『臺灣文藝』雜誌的意義和影響」, 『臺灣文藝』, 1997.
- 龍瑛宗, 「論吳濁流的『亞洲孤兒』」, 『文學界』9期, 1984.
- 林鍾隆, 「臺灣文藝與吳濁流」, 『臺灣月刊』, 2002.
- 子敬, 「由『亞細亞的孤兒』談吳濁流的孤兒」, 『台灣文藝』, 1969.
- 張金牆, 「『臺灣文藝』研究」, 成功大學歷史研究所, 1997.
- 鍾肇政, 「鐵血詩人吳濁流(上), (下)」, 『臺灣春秋』16期, 17期, 1990.
- _____, 「以殖民地文學眼光看吳濁流文學」, 『夏潮』, 1976.
- 曾貴海, 「臺灣文學的亞細亞孤兒情境」, 『臺灣新聞報』, 2001.

- 陳麗雅,「吳濁流作品國際研討會專輯」,『新竹文獻』,2000.
- 陳昭瑛,「吳濁流『亞細亞的孤兒』中的儒學思想」,『國文天地』,2000.
- 陳映真,「試評『亞細亞的孤兒』」,『臺灣文藝』58期,1977.
- 彭瑞金,「吳濁流,陳若曦亞細亞的孤兒」,『文學界』,1985.
- ,「從『無花果』論吳濁流的孤兒意識」,『台灣文化』,1986.
- 向陽,「文學雜誌與臺灣新文學發展」,『文訊』,2003.
- 黃娟,「不朽的吳濁流- 憶『臺灣文藝』的吳濁流先生」,『文訊』,2003.
- 黃娟,「再讀『亞細亞的孤兒』」,『文學界』13期,1985.

Abstract

A Study on the Wu Zhuo Liu of short stories

You, Jae-sung · Lee, Yong-tae

Wu Zhuo Liu was born in 1900, he passed away at 77 in 1976. He published <Shuiyue> in *The Taiwan New Literature* as his the first work of art. He had done his works of art for 38 years until completing his last work of art, <Taiwan Yanqiao>. He had gone through an age of turbulence which were the Japanese colonial era, World War Two, Taiwan Independence, Nationalist Government in Taiwan.

In this regar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beginning of Taiwan Independence. The Union China in the Chinese side and the Taiwan Independence party, both parties are trying hard to justify their theory for a political purpose that had taken advantage of Wu Zhuo Liu's works. The content of pieces of his works was contained Taiwanese colonial life, the horrors of secondary war, social chaos after Independence, an economic loot and economic panic. It also described a police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the overall social features and a miserable life. He depicted specifically the sense of identity of Taiwan, the universal worries and concerns of Taiwanese in the works. This is the value of the work. At this point, he explained that "my novel contains historical character and represent social aspects. Currently, 19 volumes are available to reflect the Japanese colonial era, social aspects after Independence and political influence, therefore, we can recognize the nature of facts".

He described pro-Japanese group, discrimination, the powerless of Taiwanese, monopoly of power, economic monopoly, the difficulty of public livelihood by qualify themselves as a native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the beginning of Taiwan Independence in the works.

The author would divide intellectuals form, scholars who toe the government line form. women's movement form and lower class form in short novels out of these Wu Zhuo Liu's works and reflect social aspects and distorted social

phenomena caused by the political influence after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ndependence.

Key words: Wu Zhuo Liu, Taiwan Modern Literature, the Japanese colonial era, Nationalist government, Wu Zhuo Liu's short stories

투고일: 2017. 4. 10. / 심사일: 2017. 4. 15.~ 2017. 5. 15. / 게재확정일: 2017. 5. 20.